

음악문화의 모랄, 평론의 틀 제공

음악잡지의 현황과 동향

민경찬

음악평론가 · 서울대 강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디어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을 하게 된다. 그리고 미디어는 사회 문화 전반의 수준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문화를 촉진시켜 준다.

현대적 매스 미디어의 한 종류인 음악잡지는 음악문화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음악문화의 수준을 촉진시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문화권 그 음악문화와 음악잡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학술지와 자료집 기능까지 도맡아

음악잡지는 보도와 평론, 음악적 지식의 전달, 정보 제공 등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예술활동의 안내서 노릇을 해주고 있다. 더욱이 우리와 같이 음악이론의 활동이 미비한 나라에서는 음악이론서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음악연감이나 제대로 씌어진 음악사 환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역사서와 그 자료의 역할까지 해주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음악잡지는 단순한 음악잡지가 아니라 학술지와 자료집, 그리고 역사서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하나 같이 경영난과 인식부족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했으며, 창간과 폐간의 악순환을 거듭해야만 했다. 다행히 근자에 들어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음악잡지는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었고, 그에 따라 평론과 학술적인 연구도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현재 간행되고 있는 음악잡지는 약 10여종에 이른다. 그것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악

음악잡지들이 음악인구의 확산이나

음악평론의 틀과 장을 제공하는 데

끼친 공로는 매우 크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만성적인

경영난과 실기위주의 사회적 의식구조,

음악인의 낮은 독서열과

필자 부족 등 서둘러 극복해야 할

문제점을 한결같이 안고 있다.

교양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는 「음악동아」 「객석」 「월간음악」 「음악예술」 등이 있고, 대중음악지로는 「음악세계」 「대중가요」 등이 있다. 분야별 전문지로는 「음악교육」 「피아노음악」 「오디오와 레코드」 「레코드음악」 「교회음악」 등이 있으며, 학술지로는 「음악과 이론」 「음악학」 「낭만음악」 「음악연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음악잡지들이 우리의 음악문화에 끼친 공로는 우선 평론의 틀을 제공해 주었고 평론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데 있으며 둘째, 음악적 지식의 보급과 정보제공을 해주어 음악을 바르게 인식시켜주고 또 음악인구를 확산시켜 주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셋째, 앞으로 있을 한국음악사 연구에 1차적인 자료구실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넷째, 우리 음악문화의 모랄을 제공해 주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순기능적인 면 못지 않게 역기능적인 면 또한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잡지에서는 일본것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외국잡지에 실



린 내용을 무단으로 베끼거나 인가없이 번역하여 실는 경우도 있으며, 편집기준이 모호하여 독자들로부터 의혹을 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간혹 무분별한 평으로 인해 평론의 불신풍토를 심어 주기도 했다.

평론불신 풍토 조장하기도

그런데 우리의 음악잡지는 한결같이 그 이면에 만성적인 경영난과 실기 위주의 사회적 의식구조, 음악인들의 낮은 독서열, 필자의 부족 등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편집방향도 독자의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음악잡지들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 구조적 모순점을 어떻게 타파하고 그 역기능적인 면을 어떻게

순기능적인 면으로 환원시키나 하는 것이 음악잡지계가 안고 있는 과제인데, 이러한 과제는 어느 한쪽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의 사명감과 독자의 애정 그리고 사회적 뒷받침이 조화를 이룰 때 해결될 것이다.

바람직한 음악잡지란 결코 잡지를 위한 잡지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회를 위한 잡지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애정을 가져야 한다.

音樂教育

한국의 음악문화와 앞서가는 교육문화
실천을 추구하는 잡지!!

세광음악출판사 / 4·6배판 / 240면 / 2,800원

☎ 719-2652

춤
CHOOM

무용에 관한 학술 및 교양에 대한 사항을 게재함으로써 무용예술 향상에 이바지하는 무용전문지.

서울·종로구 동숭동 19-2
762-3595 · 745-6570

銀行界

일반국민경제 국내외의 재정 경제에 대한 정보, 이론및 은행원의 교양을 위해 국내외의 금융산업에 대한 정보 등을 수록한 금융 경제 전문지

月刊雜誌 圖書出版 **銀行界**

서울·서초구 반포동 704-3 TEL : 544-6251, 540-6252

제1회 해외 진출 1989 4

대특집 해외부동산투자
동구권시장전략
해외취업이민정보

정통 미국유학 중소기업지원대책과
일본의 한국인 취업 해외진출 방안
실태 한국기업인과의
합작투자를
국내대학 비용으로
해외유학 갈 수 있다
한국기업인과의
합작투자를
바란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16-1 광화문 B/D 3층